

大腸癌의 原因과 病理

부유한 계층에 많은 유복한 질병

의 발달로 모든 장기에 발생하는 암세포들 보다 세밀하게 조 기 관찰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체에서 병변부위를 절제하여 여러 과정을 거친 뒤,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진단을 내리는 조직검사 방법은 정확하고도 신속하여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생명 연장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크게 나누어 외적원인과 숙주의 내적인 자를 들 수 있다. 외적인자는 환경인자라고도 하며 발암성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또는 자외선 그리고 Virus 등에 의한 감염을 들 수 있고 내적인자로는 숙주의 유전인자를 들 수 있다.

우리 신체의 세포(체세포)가 이상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켜 암세포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는 환경인자가 작용하고 체세포내의 유전인자 사이에 균형이 파괴되어(Growth Promoting Oncogene와 Cancer Suppressor gene) 그 결과 변화된(돌연변이를 일으킨) 세포가 계속 증식하며 DNA의 다 발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암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된다.

암의 발생부위와 발생빈도는 민족성, 지역성, 환경, 생활습관, 남녀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에서는 위암, 간암, 악성 임파종 및 백혈병이 많고 여성에서는 자궁경부암, 위암, 악성임파종 및 백혈병이 많다.

반면 서양인(주로 미국의 통계)에서는 남성에서 폐암, 전립선암, 대장 및 직장암이 많으며 여성에서는 유방암 대장 및 직장암 자궁내막암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대장 및 직장암은 미국, 캐나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호주 등 주로 선진국 국민에게 많으나 인도, 콜롬비아, 서아프리카, 폴란드 등에서는 그리 많지 않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즉 대장 및 직장암은 사회 경

우고 있다. 대장 및 직장암은 그 발생 부위로 보아 맹장이나 상행결장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와 S자 결장이나 직장에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상기한 선진국의 예를 보면 후자의 경우가 많으나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에도 점차 맹장이나 상행결장의 암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S자결장경의 발달로 심부까지 직접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반적으로 위암이나 장암의 경우 식생활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대장암은 식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면 채식위주의 식생활이 육식으로 바뀌면서 전에 없던 대장암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대장암의 발생원인으로 첫째 야채 섬유 흡수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둘째 다량의 정제된 당분 섭취와 셋째 많은 지방섭취를 꼽을 수 있다. 섬유질의 감소는 대변의 양을 줄이고 장내 대변이 머무는 시간을 연장시키며 그 결과 장내세균 집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당분이 많은 음식은 소량의 대변내에 농축되고 장점막에 오래 접하게 되어 세균의 증가를 야기시키고 담집염(bill salts)이나 스테롤을 완벽하게 분해한 결과 Carcinogen(발암물질) 또는 cocarcinogen이 형성되어 대장암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계실(장의 일부가 약해져서 불룩하게 된 것), 충양 돌기염, 삼종(polyp)과 장염 등이 있는 사람에서 대장암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이 병은 70대에 많으며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경우 유전성 폴립 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대장암의 60~70%는 직장, S자 대장에 발생하며 나머지는 상행결장과 맹장에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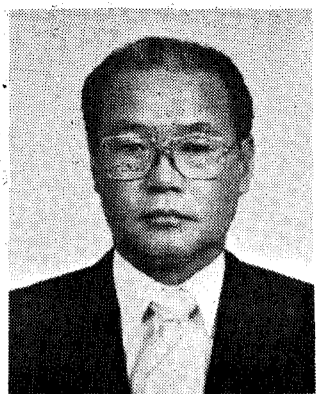
직장 또는 S자결장경에 발생하는 암은 대체적으로 윤상으로 나타나며, 대장벽을 둘러싸고

이와같은 암은 초기에 단추 모양으로 돌거나 삼중같은 형태로 시작하여 1~2년 사이에 장벽을 둘러싸게 되며 점막면은 궤양을 형성하고 암조직은 침윤성으로 임파선, 임파절 등을 침범한다. 반면 상행결장이나 맹장부위에 발생한 암은 폴립 모양으로 돌출하여 장폐색에 이르지 않는다. 꽃양배추 모양으로 자라고 궤양형성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 부위의 암은 장벽을 관통하여 장관막이나 국소 임파절로 퍼져나가며 다른 곳으로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 초기에 폐쇄증상이 없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조기진단이 어렵다.

이와같은 전지에서 볼 때 우리 인체의 좌측에 해당하는 직장이나 S자상 결장부위에 발생한 암과 우측에 해당하는 상행결장이나 맹장부위에 발생한 암은 서로 다른 임상적 의의를 가진다. 병리조직학적으로 대장에 발생한 암은 대부분(95% 이상)이 선암이다.

그러나 미분화암이나 편평성 상피암도 드물게 나타난다. 기 술한바와 같이 직장이나 S자결 장 부위(좌측)에 발생한 암과 상행결장이나 맹장(우측)에 발생한 암은 자라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임상증상도 다르다. 좌측의 경우에는 잠혈(대변에 피가 섞여 나타남) 설사, 또는 변비 등 배변습관이 불규칙 하게 되고 발견되기도 쉬우므로 조기 치료가 가능하나 침윤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조기치료가 가능한데 비해 예후는 좋지 않다.

우측의 대장암 경우 전신쇠 약, 전신위화강, 체중감소, 빈혈 등을 호소하게 되며 출혈하기 쉽고 잠혈을 볼 수 있으나 조기 발견이 어렵다. 모든 대장암은 국소 임파절이나 간장 폐장, 또는 골격, 복막강 그외에 뇌 등에 전이를 일으킨다. 환자의 예후는 장 침범의 범위와 임파절 점이 유무, 그리고 조직학적 분 화도 및 발생부위에 따라 다르



康相均

〈순천향 의대〉
〈병리학 교실〉

은 35~49%로 매우 비관적이

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암 발생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종전의 식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섬유질이 적고 당질이 많은 서구형 식생활로 옮겨지는 현상때문이 아닌가 한다. 소화기 계통의 암이 식이와 많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균형있고 절제된 식생활 조절로 어느정도 이들 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식이요법 못지않게 규칙적인 식생활도 중요하며 암을 포함한 대개의 무서운 질병이 정신적 요소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암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변 습관의 변화라든지 이유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잠혈, 빈혈 등이 나타나며 일단 전문적인 진찰을 받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대와 같은 복잡한 생활 여건 속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각자의 노력이 자신을 지키는 지름길이며 따라서 식생활 및 환경 개선에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신 공히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활

인류사회에는 많은 질병이 있으나 암은 현대의학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운 병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이는 곧 사형선고라고 생각하고 치료에 임하기보다 생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을 정도다.

원래 암이란 병리학적으로는 악성 종양을 뜻한다. 이는 신체 세포조직이 변화를 일으켜 무한정 자라나면서 숙주의 장기 조직을 파괴하고 때로 임파관이나 혈액을 경유하며 다른 곳을 퍼져 나가며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병을 말한다. 악성 종양에 대한 기록은 오랜 옛날부터 문헌상에 나타나 있다. 그 중 유방암은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전해진다.

유방이 암조직으로 혈어나고 주변 임파선이 확장 되는 것을 보고 그 모양이 게와 같다하며 라틴語, krebs에서 Cancer(암)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근래에 와서 세포 병리학

야채섬유흡수감소·다량의 정제된 糖分 섭취 배변의 不規則, 체중감소 빈혈등이 주원인

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명 Disease of affluence(유복한 질병)라고 불리

자라기 때문에 napkin ring을 연상시키며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폐색증이다.

다. 대장암 환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포함한 환자의 향후5년간 생존율

습관이 암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일약품

당뇨성 신경장애

새로운 치료제로 입증된 비타메진

이런 증상일 경우가 당뇨성 신경장애입니다.

- 혈액중의 고혈당은 신경조직을 파괴하여
- 팔다리의 무력감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입니다.
- 발기부전과 배뇨가 곤란하다.
- 이와같은 당뇨성신경장애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당뇨로 손상된 신경조직이 살아납니다

대량의 비타민 B群은 인슐린의 생성 및 활성을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부활작용도 우수하여 최근 당뇨성 신경장애, 망막증, 신증, 기타소모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로 그약효가 입증되었습니다.

- 손상된 신경조직을 조속히 재생시켜줍니다.
- 소염진통제가 아니면서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고단위 약효도 다릅니다.

- 벤포티아민..... 69.15mg
- 염산 피리독신..... 50mg
- 시아노코발라민..... 500µg

당뇨성신경장애, 신경통, 기타소모성질환 치료제

표준소매가격 50mg, 100캡셀 22,000원

10만원代 혈당측정기

혈당측정기의 세계적 권위 미국의 에임스가 사용이 더욱 간편해진 글루코메타 GX를 선보입니다.

高性能 저가격의 글루코메타GX

1. 하나의 버튼으로 조작이 간편.
2. 광전사법에 의한 완벽한 측정.
3. 10회분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4. 반영구적인 수명.
5. 휴대가 간편한 담배갑 크기.
6. 기능과 성능에서 비교할수 없는 가격16만원.

글루코메타GX

비타메진과 글루코메타GX에 대한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100-60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8호 (02)464-0861
비타메진 (코)585, 글루코메타 GX (코)에임스실
지방: 대구영업소 752-5544, 대전영업소 253-9597, 9598, 광주영업소 223-6667-6668